

강원의 인물



이효석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호강을 부리던 놈이
객기로 그만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나,
먹고살고자 다시 왜놈에게 아침을 하는 글을 쓰는 건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यो.”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강원도의회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회다운 의회로 다가가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강원도의회
2021 | 통권 제 185호



표지설명 : 위는 왼쪽부터 회암동굴, 오른쪽 세조대의 회장저고리, 아래는 상원사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강원도의회 의원현황

CONTENTS

04

인사말

· 강원도의회 의장

제302회 임시회

06

의회 핫이슈

-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
- 군인급식제도 상생발전 촉구 건의

08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5분 자유발언

도의회 자료실

의원수첩

- 남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
-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 박상수 의원(국민의힘·삼척2)
- 김준섭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2)
- 신도현 의원(국민의힘·홍천2)

02

04

06

10

16

21

22

자치분권 2.0시대

강원도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함께 해요!





강원도의회 의원현황

CONTENTS

04

인사말

· 강원도의회 의장

제302회 임시회

06

의회 핫이슈

-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
- 군안급식제도 상생발전 촉구 건의

08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5분 자유발언

도의회 자료실

의원수첩

- 남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
-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 박상수 의원(국민의힘·삼척2)
- 김준섭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2)
- 신도현 의원(국민의힘·홍천2)

02

04

06

10

16

21

22

조례 Q&A

조례 포커스

정책 제언

· 그린뉴딜 추진 1년 성과 점검

연구회 탐방

· 기후변화연구회

뉴스 포커스

포토 포커스

언론 속 의정

강원 인문학

- 상원사
- 세조대의 회장저고리
- 화암동굴, 용소동굴, 산호동굴
-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

도의회 연간 일정

32

36

37

40

42

44

46

48

52

강원 의정

GANGWON · PROVINCIAL · COUNCIL · JOURNAL

2021 Vol.185

통권 185호 | 2021년

43



45



48



51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강원도의회 의정소식지인 '강원의정'에서는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발행일 | 2021년 8월 6일
발행처 | 강원도의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발행인 | 강원도의회 의장 박도영
편집인 |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고영선
기 회 |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
문 의 | Tel. 033)249-5169 / Fax. 033)249-5023

기후위기 극복, 그린 뉴딜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소통과 상생, 도민 행복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쉽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장악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도민들은 답답함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등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자 애쓰며 코로나-19의 종식을 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처럼 정부의 방역 정책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의 단단한 결속력과 서로에 대한 애정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다시 굳세게 일어나는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나가는 강국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향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린 뉴딜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 여름, 연일 35℃를 넘나드는 이상고온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기록적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린 뉴딜만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답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정책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훼손해온 지구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도민들도 자원 순환과 쓰레기 저감, 탄소배출량 최소화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오만이 행한 파괴를 응징하듯 반격하는 자연 앞에서 우리는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막히는 듯한 더위를 느낀다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동참하고 생활 속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삶의 공간을 이제는 우리가 회복시키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 겸손한 발걸음에 도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

“이상고온을 실감한다면
자원 순환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앞장설 것”

강원도의회는 7월 6일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7월 1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2차에 걸쳐 본회의가 열렸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회기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강원도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등 11개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9건을 가결하였다. 또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과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생 위해 머리 맞댈 것”

곽도영 도의장(더불어민주당·원주5)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과 인접지역인 강원도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내수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 도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심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를 분리해 유형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동해2)은 “강원도 공무원 직렬 중 소수 직렬 결원의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태경 의원(더불어민주

당·춘천3)은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의 확대”를 주문하였다. 정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강원도를 야구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베이스볼 파크를 조성하고 강원도립대에 야구부를 창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심영섭 의원(국민의힘·강릉1)은 “강릉 회산지역에 회산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유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강원도가 동물복지 관련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3)은 “도내 학교도서관을 365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2)은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에서 주야간 돌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권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6)은 “화물자동차 사고지를 적극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심상화 의원(국민의힘·동해1)은 “알펜시아 매각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 2021년 주요업무보고 통해 민생업무 현황 점검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부서의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 2021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고 현지 시찰을 진행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및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를 협의하였고 의회사무처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 실국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을 심의하였다.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소관 실국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또 화천문화원 신축 현장, 화천관광다리, 평화의 댐 등을 시찰하였다.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한편 소관 실국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하였고 소관 실국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원주의 강원도 백년기업인 뉴보텍을 탐방하고 횡성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을 시찰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연구원 등 15개의 직속기관, 춘천교육지원청 등 17개 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6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심의하였다.

회기에 상정된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은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1건이었으며 9건이 가결되었다.

제302회 도의회 임시회는 7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간호학과 신설해 지역 간호사 늘려야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

올 3월 11일 국제간호사협의회(ICN)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 2,700만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으나 현재 600만 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간호사 부족은 거의 1,3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케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21만 5,000명 중 48.3%인 10만 4,000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간호사 가운데 46.6%가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 강원도는 6,043명으로 인구 1,000명 당 3.9명으로 전국 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증설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이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어 열악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7월 15일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 간호학과와 경우 최초년도의 입학생은 국가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어 의료법이 간호학과와 신설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강원도의회는 지방의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간호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원도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의안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있어서 간호사는 의료서비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인이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삶 전반에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암·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원들의 의료인력 환경은 갈수록 점점 악화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간호사들은 지방병원을 떠남에 따라 병상 수 확충이나 진료과목의 확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러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은 궁극적으로 의료 질 저하와 지방 간 의료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간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간호 인력은 4.2명이며, 강원도의 경우 3.9명으로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80여 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의료기관 수는 14위, 간호사 수는 12위에 해당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의료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 간호학과와 경우 최초년도의 입학생은 국가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어 의료법이 간호학과와 신설을 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지방의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간호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원도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15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군인급식에 지역 농어업인 참여 보장하라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

지난 7월 4일 국방부는 현행 군 급식 시스템은 공급자 위주의 농수축산물 조달체계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하여 군 급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급식 조달을 해온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부실급식 문제는 운영의 문제가 크며 군 급식제도에는 반드시 농어업인의 보호 원칙과 민군상생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도 여기에 합세했다. 도의회는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군 장병의 기본권으로 급양권을 명시화하고 군 급양관제도의 신설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현재의 부실급식 문제는 조달이 아닌 운영의 문제로 경쟁조달이 최선은 아니며,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한다면 농수산물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우수식품기업 등의 참여가 바람직한 제도일 것.”이라며 “군 급식에는 농어업인의 보호 원칙과 민군상생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모든 군인은 건강하고 흥미 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밥맛이 좋은 쌀과 제철음식 및 절식(節食) 지급을 급식지침에 반영할 것, 군인 급식에는 군부대 인접지역 농수산물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우수 식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장병의 건강과 기호에 적합한 급식품목은 부대조달 또는 경쟁조달하고 급식에 필요한 농수산물 및 과일은 육군·해군·공군본부와 협동조합이 계획생산을 통하여 공급할 것, 군인 급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군 급양관제도를 신설하고 군인 급식관리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하여 군 급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수축산물의 군납에 있어 농·수·축협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군인 급식의 기본정신은 장병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있으며 국방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수협중앙회와 일괄 수의계약 및 계획생산제도를 선택하였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각 군과 농·수·축협은 군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로컬푸드 시스템을 군납에 접목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5월 경쟁조달의 문제로 군 부식 납품 거부 사태가 일어났으며, 2005년에는 농수산물 계획생산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는 몇몇 부대의 부실급식으로 인해 군 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의 부실급식 문제는 조달이 아닌 운영의 문제로 경쟁조달이 최선은 아니며,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한다면 농수산물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우수식품기업 등의 참여가 바람직한 제도일 것이다.

군 급식에는 농어업인의 보호 원칙과 민군상생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군 장병의 기본권으로 급양권을 보장하고 군 급양관 제도와 군인 급식관리원 신설, 군부대 인접지역 농수산물의 우선 납품 확대정책 등 군 급식 상생발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모든 군인은 건강고 흥미 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밥맛이 좋은 쌀과 제철음식 및 절식(節食) 지급을 급식지침에 반영하라.

하나, 농어민 보호와 급양 향상을 위하여 군인 급식에는 군부대 인접지역 농수산물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우수 식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하나, 장병의 건강과 기호에 적합한 급식품목은 부대조달 또는 경쟁조달하고 급식에 필요한 농수산물 및 과일은 육군·해군·공군본부와 협동조합이 계획생산을 통하여 공급하라.

하나, 군인 급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군 급양관제도 신설과 군인 급식관리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라.

2021년 7월 15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다음 회기에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행사 개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7월 6일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기간 중에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며 강원도의회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통해 다음번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 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본 기간 중에는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처리 안건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규호



강원연구원장 채용비리 연루 등 구조적 문제 지적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규호)는 7월 7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7월 14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개 실국 및 기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먼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한 언론 등의 사전조율 의혹 제기 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 특정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강원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불거진 강원연구원장의 채용 비리 연루에 따른 사퇴 등 강원연구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양자

정보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 마스크 구입계약 금액의 차이에서 드러난 용역·물품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는 평화지역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또 본부 존속기간이 올 10월로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문화, 숙박, 경관 등 타부서와의 업무중복 부분에 대한 기능개편이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장덕수



가짜뉴스 대응 위해 적극적인 도정 및 의정홍보 주문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장덕수)는 7월 7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7월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각종 안전에 대해 심의하고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의에서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와 관련 지역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도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소·취소된 교육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교육계획을 확인하였으며 정원대비 현원 부족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직

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확산으로 도와 도의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도·의정홍보를 주문하였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방역 및 백신접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접종운영에 만전을 당부하였다.

7월 14일에는 화천지역 문화예술·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지를 시찰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화천문화원 신축현장, 화천관광다리, 평화의 댐 현지시찰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군납농가 피해방지 대책 마련 주문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7월 7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7월 7일부터 13일까지 2021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였다. 7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건의안 1건을 심사·채택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상수도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밀집지역 집중검사, 소금에 대한 방사능 추가검사, 건강기능식품 성분검사 강화, 참진드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을 당부하였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과수세균병 대책 마

련,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한 치유농업 추진, 농작물재해 보험 홍보강화, 옥수수종자 보급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채종·보급종 품종개량 등을 주문하였다.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새농촌 육성사업 계획 재정비,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군납 농가 피해방지 대책 마련, ASF 방역 지원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임업경영체 수당 조기 지급,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환경해부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사업, 내수면 사업 확대 등을 주문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
-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원



옥상 녹지화 위해 지원 조례 가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형원)는 7월 7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첨단산업국 및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고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7월 8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열어 권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하였다. 이어 건설교통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7월 9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열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주요처리 안건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재연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신뢰관계 구축 당부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연)는 7월 7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이어 7월 8일 제2차 교육위원회, 7월 12일 제3차 교육위원회, 7월 13일 제4차 교육위원회, 7월 14일 제5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강원도교육청, 15개 직속기관, 17개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교육위원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기관 개편, 프로그램 통합 운영 등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 최근 도내 대안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빈번

한 이유를 묻고 학생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신뢰관계 구축을 당부하였다.

이어 새학기 시작 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급식소 칸막이 설치 등 학교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주요교육 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확인·점검함으로써, 교육현안사업의 정상 추진과 강원도 공교육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처리 안건

- 2021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1차 본회의 / 7월 6일

소외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복지 행정 실천에 대한 제언심영미 의원 의원
(교육위원회·비례)

- 2012년 7월 강원도 사회복지과는 복지 정책과, 경로장애인과로 분과되었으며 2012년 경로장애인과의 예산은 2,435억 원에서 2021년에는 9,020억 원으로 약 3.7배가 증가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조직도를 보면 노인복지 분야는 5개 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4개 과가 있으며 장애인복지 분야는 국 단위로 분류되고 있음. 또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조직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통합되어 있는 곳은 강원도와 충북 뿐이며, 전국적으로 노인장애인 분야 전담인력이 20명 미만인 곳도 강원도 뿐임.
- 이미 춘천시는 2019년 7월에 경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되었고, 강릉시는 2018년 11월부터 현재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분과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행정체계는 아직도 경로장애인과에 머물러 있음. 즉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전혀 다른 대상의 서

비스 수요자를 동일한 행정업무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2020년 4월 도의회에서 경로장애인과 분리 직제개편 촉구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

⇒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복지 행정지원 인프리가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로부터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됨.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림. 또한 격무부서인 경로장애인과 근무자들에게 인사상의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격무부서가 아닌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희망부서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바람.

- 5월 말일 현재 직종·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행정직군(행정, 세무, 전산)의 결원비율은 -7.3%인데 비해 기타 직군의 결원비율은 -13.6%로 약 2배 정도의 결원비율의 차이가 있음. 100명 이상 직렬만 비교해보면 행정직 결원비율이 -6.7%, 해양수산직 결원비율은 -7.4%인데 비해 공업직 결원비율은 -18.6%이고 시설직 결원비율은 -15.2%로, 크게 차이가 남. 그리고 100명 이하 직렬을 보면 수의직이나 환경직 정도만 결원비율이 -10% 이하이고 농업직 -11.2%, 녹지직 -15.5%, 방송통신직 -29.2%, 보건직 -15.6%, 전산직 -19.5%, 사회복지직은 무려 -40%나 되므로 소수 직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충원책 등이 필요함.
- 또한 행정직이나 시설직의 경우 전체 정원의 현원비율이 46.1%, 12.3%인데 비해 담당급 현원비율이 57.4%, 13.8%로 타 직렬은 훨씬 줄어드는 데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물론 이것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 못한 단순화한 비교지

합리적인 복수직렬
인사에 관하여김형원 의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동해2)

만 일반행정직렬의 우대로 나타나 결국 상위직급 다수 직렬의 편중화 내지 독점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그리고 복수직렬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양수산직을 보면 복수직 자리가 총 9개인데 그중 7개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직만 보면 시설직과 겹친 복수직 자리가 29개인데 그중 20개를 시설직이 맡고 있음. 즉, 이것은 해당 직렬이 적합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 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수 직렬 결원의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충원책이 필요함.
- ② 상위직급의 일반행정직 편중화 또한 해소를 시켜야 함.
- ③ 복수직렬의 정상화 및 소수 직렬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자치경찰제의 기능이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이관되면서 큰 기대가 있었으나 도민께서 피부로 공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업무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이는 가장 민생과 직결된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자치경찰제 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빠져있기 때문이 아닌가 함.
- 도의 특별사법경찰제 운영은 2012년부터 기구에 편제되어 민생 5분야에 전담 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편제와 운영이 시대정신과 맞는지 반성이 필요함.
- 도내 유명 관광지인 계곡과 하천, 해변 등에 설치된 불법시설을 시작으로 바가지요금, 환경오염 등 산적한 문제가 있으나 해결은 요원함.
- 이밖에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연간 몇 천%씩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와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대출을 발생시키는 등 악랄한 범죄 행위, 마땅히

- 얼마 전 강릉고등학교 야구부는 황금사자기 전국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음. 강릉고 야구부 선수들, 그리고 최재호 감독님, 후원과 응원을 해 주신 강릉고 동문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 프로야구 원년 삼미슈퍼스타즈의 홈 개막전 이후 강원도에서 프로야구는 자취를 감췄고 자연스럽게 강원도 야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우승 청부사’로 불리는 최재호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은 강릉고등학교 야구부의 행보로부터 강원도 야구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되었음.
- 우리나라 3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프로야구는 가장 많은 관중을 보유하면서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야구부 창단은 학교와 지역의 홍보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많은 대학이 창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함. 첫째, 강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원태경 의원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춘천3)

-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재산을 빼돌려 놓고 호의호식하는 세력들,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불법 무허가 업체에서 자행되는 학대 행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련 범죄예방 및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 부당한 거래 행위들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처벌에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절실함.
- 아울러 재난안전법,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역, ASF 관련 업무, 도로법, 저작권법, 산지관리법, 계량법, 자동차관리법, 석유사업법 등 113개 법률과 관련된 직무 중 108개 법률과 관련된 업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함.

⇒ 강원도는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를 지명받아 수사 업무를 개시하면 됨.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함.

강원도를
야구도시로정수진 의원 의원
(사회문화위원회·비례)

원도를 야구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베이스볼 파크 조성을 제안함. 강릉고와 영동대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선수들이 들어가고 싶은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고 있음. 이런 결과까지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있었으나 강원도나 강릉시는 제대로 된 야구장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강릉지역에 엘리트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의 정식 야구장이 있는 베이스볼 파크 조성을 제안함. 둘째, 강원도립대학교 야구부 창단임. 좋은 선수들을 키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강원도가 출자한 도립대에 야구부를 창단하고 대학팀을 탄생시킨다면 매 경기마다 이기고 지는 데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베이스볼 파크 조성과 강원도립대 야구부 창단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본 의원은 수차례 언급한 적 있는 강릉 화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음.
- 화산지역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약 8,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거주지역으로 변모했음. 화산지구 아이들은 버스로 세 정거장이나 떨어져 있는 명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본 의원은 현재 명주초등학교만으로는 화산지역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생각함. 처음 서희아파트 700세대를 분양할 당시 초등학교 신축 예정 부지로 한신아파트 옆 부지를 매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명주초등학교 증축으로 변경되었음.
- 더군다나 여기에 추가로 2024년 1월 입주예정인 아파트까지 더해진다면 1,500세대, 3,000여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님은 공약 중 한 가지인 강릉 화산지구 초교 신설을 약속

강릉시 화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관하여



심영섭 의원
(농림수산위원회·강릉1)

한 바 있으나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3차 도정질문 시 교육감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음.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3명인데 비하면 명주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4.6명으로 강릉 소재 38개 초등학교 중 최상위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더 이상 명주초등학교의 증축은 불가능함. 한시라도 빠른 결단으로 화산지역에 화산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함. 조속히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화산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따뜻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람.

- 강원도 학교의 도서관 운영을 365일, 연중 문을 열자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함. 이 부분에 관해서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교육청에 질의도 하고 요구를 하기도 했음.
- 다행히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까닭인지 방학 중에 20일 정도 학교 도서관의 문을 시범적으로 열고 있음. 그러나 석달의 방학 기간 중 20일은 아쉽게도 짧은 시간임.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방학 중 학교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고 도서관인력을 방학 중 비근무로 채용하는 곳은 강원·대구·서울 세 곳뿐이고, 도 단위는 강원도교육청이 유일함.
- 예산 때문인가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일 방학 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은 7억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현재 학교 도서관 사서 등 도서관 전담인력이

방학 중 학교도서관 확대 운영에 대하여



박윤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원주3)

없는 미배치교 사업에 대한 예산은 4억 원 정도임. 이 둘을 합친 예산과 실제 365일 상시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4억 원 정도 차이가 남. 이렇다 보면 단순히 예산 때문에 365일 상시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움. 사실 20일 운영과 365일 운영에 따른 다양한 이익과 혜택을 수치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함.

⇒ 지금의 상황은 도내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독서교육, 독서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게 됨.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이미 시행 중인 14개 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왜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시행이 안 되는지,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진입장벽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람.

제2차 본회의 / 7월 15일

-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함.
-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포함되나, 축산물의 가공·유통을 규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은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식용 개 고기를 만드는 개의 도축·유통 과정은 법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결과적으로 개의 도살은 무법지대에 있으며, 일부 흑염소 도축장에서는 대단위 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원도는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로 답변하였음.
- 현재 강원도청 앞에서는 개 도살 금지를 외치는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육견협회의 맞불 집회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음. 반려동물의 메카도시로 자리 잡았던 춘천은 동물학대를 묵인하는 도시가 되었고, 강원도는 전국 동물보호단체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음. 그러나 브라이트 감독의 개고기 산업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강원도 동물복지 정책에 관하여



정유선 의원
(교육위원회·비례)

‘누렁이’에서 악마화 되지만 했던 개 농장주의 너무나 가난한 처지나 개소주가 건강에 좋다는 소박한 믿음으로 건강원을 꾸리는 시장 상인의 이야기는 개 식용 산업을 단순히 동물학대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줌.

⇒ 강원도가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꿈꾼다면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함. 그리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해야 하며, 반려동물 문화시설 확충과 동물 보호정책 지원으로 동물복지 향상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임. 먹는 개와 함께 사는 개를 구분하지 않는 동물 복지정책, 이제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강원도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임.

- 도청 앞에는 11억 4,000만 원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연간 3억 8,000만 원 가량의 도비와 국비 90%가 지원되는 범이곰이 돌봄센터가 올 3월에 개소하였음. 이 센터는 입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도청 직원들의 자녀이며, 5순위는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 가정 아동으로 하되 총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받고 있으나, 5순위 자녀 입소자는 없음. 도민들이 강원도청 공무원 자녀들을 특별한 시설에서 교육하도록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님.
- 취약계층 자녀들은 방과 후 수업을 듣지 못하면 아동이 방임·방치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 원주의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형 지역특화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임.
-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은 밤 10시까지 돌

원주시 놀이문화 혁신센터에 관하여



이병헌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원주2)

봄과 주말 돌봄을 실무자들이 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아이행복마을은 다 함께 돌봄만 남기고 지역특화사업은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아이행복마을의 지역특화사업이 종료될 경우 실무자 인원이 감축되어 200여 명의 아동이 갈 곳을 잃고 야간 돌봄과 주말 돌봄이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양육자들은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그 결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됨.

⇒ 국가는 의무이고 국민은 권리임. 범이곰이 특정인들만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 됨. 아이행복마을에서 누려야 할 아이들이 눈치만 보고 떳떳하게 밥 먹고 행복하였으면 좋겠음.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부응하는 강원도가 되었으면 함.

-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주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강원도민의 안전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할 때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개인 운송사업자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가 확보한 화물자동차 주차면수는 차고지 설치 대상 차량의 10%에 불과하며, 매년 천문학적인 유가보조금마저 지급할 정도로 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권순성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원주6)

물운송 사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서 무조건 운송사업자에게만 운영상 편리한 지정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함.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려우면 민영주차장 설치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강원도가 하루속히 계획을 철저히 세워 공공적인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으로부터 힘들게 살아가는 화물 운송 종사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림.

- 알펜시아는 2021년 오늘까지도 우리 강원도 재정건전성을 발목 잡고 있음. 민주당은 알펜시아를 비난하며 알펜시아 매각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각에 실패하였음.
- 정부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었고, 외자에 매각한다고 했지만 외자유치는 틀어졌으며, 알펜시아를 사들이겠다는 맥킨리사는 보증금 15억 원을 내지 못해서 계약이 어그러졌음.
- 강원도는 알펜시아를 공개입찰로 전환하였으나, 공개입찰은 4차까지 유찰되었고, 수의계약으로 다시 전환 후 한 달도 안 돼서 공개입찰로 변경하였음.
- 마침내 도정 11년만에 5차 입찰에서 매각이 성사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해당 회사와 사전에 입찰 담합 정황이 드러났음.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회사인 것처럼 입찰을 해서 공개매각을 성사시켰으며, 이 과정을 강원도가 방조 또는 종용하거

알펜시아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관하여



심상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동해1)

나 최소한 사전에 인지했다면 업무상 배임, 업무상 공범 등 중죄에 해당할 수 있음.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임.

○ 우리는 알펜시아, 레고랜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한중문화타운, 미시령터널 등 목적이 좋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지난 10년간 치러왔음.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함.

⇒ 지금이라도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강원도가 사전 인지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법적 절차를 어기고 추진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바람.

이달의 도서

오늘부터 줄이기로 했다

김진영 지음/ 민리



건강분야의 베스트셀러 '오늘부터 걷기'는 걷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줬다면, '오늘부터 줄이기로 했다'는 삶속에서 식욕, 환경, 지출, 스트레스 등을 줄임으로써 현재를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한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제이크 듀시 지음/ 연금술사



작은 도시 안에서 이름이 조금 알려진 농구선수였던 그가 어떻게 전 세계 젊은이를 향해 꿈과 도전의 영감을 불어넣는 멘토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기업이 줄을 서는 기업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을까?

등불은 그 자체로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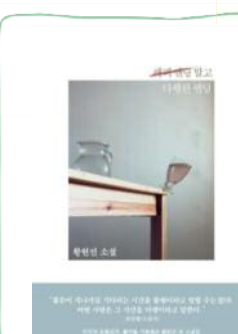
손정학 지음/ 학이사



대구의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남구의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일하며 당시의 긴박했던 6개월 동안 보고 느낀 것을 기록했다. 만약 또다시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로 몰아넣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책이 대비에 도움될 것이다.

해피 엔딩 말고 다행한 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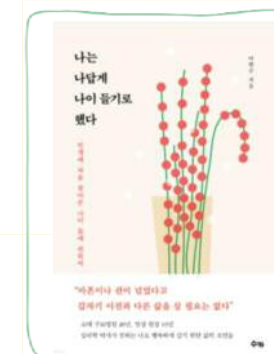
황현진 지음/ 문학동네



2011년 문학동네작가상 수상으로 작품활동 시작. 그의 등단 10주년에 그간 발표한 단편 중 열한 편을 정선해 묶게 된 셈이다. 책 한권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내놓고 싶어 질 때를 기다려 내놓은 소설집인 만큼, 허투루 쓰인 표현 없이 단정하게 완성된 단편들에서 삶을 바라보는 작가의 흔들림 없는 시선이 발견된다.

나는 나답게 나이들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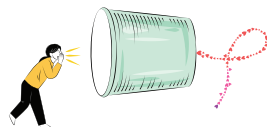
이현수 지음/ 수카



'첫 늙음'의 혼란과 불안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부터, 후천적 소인과 생활 환경에 따라 수명이 좌우된다는 후성유전학적 관점에 따른 건강관리법 등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나이 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지 심리 전문가의 따뜻하면서도 실용적인 정보들로 가득하다.



도민 불편 먼저 알고 개선하며 배려하는 정치



남상규 의원의 정치 모토는 공명 정대함이다. 치우친 열정보다는 원칙과 배려를 중시한다. 권위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 마음이 따뜻한, 살아있는 정치를 지향한다. 정치인의 시간을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치에 집중한다.

춘천4 더불어민주당

남상규 의원

수소융합에너지연구시설 유치 및 사업 지원에 박차

남상규 의원은 춘천시의회를 거쳐 강원도의회에 입성했다. 2018년 도의회 입성 후 그는 10회의 5분 자유발언을 했고 3번의 도정질문을 했다. 17개의 조례 제정에 동참했으며 6개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수치만 봐도 그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바빴을지 짐작이 간다. 춘천 토박이로서 시민을 위한 마을 개선에도 앞장섰다. 남 의원이 앞장서 추진한 덕에 소양강변에 생태탐방로가 생겼고 소양로 번개시장은 명소가 됐다.

그는 춘천시와 더불어 수소융합연구시설을 유치해 삼척과 더불어 강원도를 수소산업 거점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려왔다. 청정지역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발전이 더뎠던 춘천에 수소융합에너지연구시설을 유치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남 의원은 춘천, 삼척 등 수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춘천 발전 뿐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의 고른 발전에도 집중해왔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100억 원 편성되었고 이것을 600억 원까지 확대하도록 애쓰고 있다.

그는 또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발의해 명예도지사 선정에 도의회가 참여하는 등 보다 공명정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도내산 우유 급식,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방지법 추진

얼마전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급식에 도내산 우유를 공급해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산을 살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자는 남 의원의 제안에 따라 도는 교육청 및 낙농 관련 실무자 회의를 통해 도내산 우유 확대 공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남 의원은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카메라를 방지하는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지사가 화장실, 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에 대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경찰과 시민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며 불법 촬영 예방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탐지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남 의원은 “불법촬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민들의 불편을 먼저 알고 개선하려는 남 의원의 정성이 돋보인다.



65년 도의회 개원 역사상 조례 최다 발의



조성호 의원은 강원도의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했다. 도의회 개원 65년 역사상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14건을 발의했다.

올해는 더 박차를 가했다. 제10대 도의회에 입성하여 2년 6개월 간 현장을 뒀 만큼 바로잡고 개선해야 할 것이 더 눈에 띄었다. 올 들어 조 의원은 도의회 6회기 동안 무려 10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그런 노력 끝에 그는 지난 7월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원주7 더불어민주당

조성호 의원

민원 듣고 근본적 해결책 찾아 법제화, 발의 조례 24개

조성호 의원은 제10대 도의회가 열린 후 모두 24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과 개정, 각각 12건씩이다. 도정과 도민 생활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주변으로부터 듣는 각종 민원을 분석한 결과물을 그는 반드시 법제화하고자 한다.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회성 민원 해결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그가 발의한 조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사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시대 변화를 담고 있다. 그만큼 발 빠르다는 뜻이다. 삶의 문제를 예리하게 살피고 족집게가 가시를 집어내듯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아내 법으로 만들고자 한다.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캠핑족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감안, 도내 야영장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했다.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택배나 배달이 증가하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의미였다.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안전문제가 대두되자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 모두 최근 대두되는 이슈에 적확하게 대응하는 조례들이다.



시사성 있는 이슈와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조례 발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동주택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법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을 때 적극적인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는 「강원도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를 통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과 학업중단 대안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도 도내 18개 시군에 산재한 빈집을 활용해 저소득층이나 청년, 노인을 위해 임대하거나 공공시설로 쓸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 발의한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도 눈에 띈다. 이 조례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에 안전 펜스 설치, 지하 공간 배수 등 안전 조치와 벽화 그리기 등 경관개선이 가능해졌다.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이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지난해에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안전부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현장 뛰며 지역 아픔 해결하는 4선 의원

박상수 의원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지역구인 삼척 곳곳을 누비지 않은 곳이 없다.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책을 제시했고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완충지이자 가교 역할을 했기에 4번이나 도의원으로 선택되었다.

삼척2 국민의힘

박상수 의원

지역에 사건 생기면 곧장 현장으로, 주민-행정 사이 가교 역할

박상수 의원은 주민 민원이 생겼을 때는 현장으로 곧장 내려간다.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삼척을 휩쓸고 갔을 때는 의회 일정도 멈추고 삼척으로 내려갔다. 항구가 파괴되고 마을이 침수됐다. 그는 주민 피해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고자 했다. 차후에는 대응을 잘못해 어처구니없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머리를 맞댔다.

2019년 11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신속한 복구와 적절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태풍으로 전파됐을 때와 반파됐을 때를 구분해 보상액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박 의원의 태도는 주민들에게 항상 믿음을 주었다. 그 결과는 지역에서 4선 도의원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탁상행정 예리하게 지적, 416 지방도 등 현장에서 민원 청취

지난해 말에는 삼척시교육청에서 추진한 삼척마이스



※ 위 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촬영된 사진임

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관련 해 호된 질타를 이어가기도 했다. 주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지도 않았으며 삼척시에 인허가 절차 등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추진만 했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또 카누 등 스포츠 꿈나무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카누연습실의 합리적인 신축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적지 않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이었던 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산과 도로 접면에 설치하는 차단 펜스가 생태계 파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최근에는 탄광 갱내폐수로 인해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삼척의 미래를 위해 도계에 있는 미인폭포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삼척의 관광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삼척 가곡천로를 지나는 416번 지방도의 재구조 확·포장사업 결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박 의원은 최근 엔 공사 예정지에서 주민들을 만나 설계 관련 민원을 듣고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민들의 조언과 의견에 귀 기울이면 해답이 나옵니다. 주민과 발맞춰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남은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 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촬영된 사진임



동서는 만나게, 남북은 함께하게



평생 민주화운동에 힘써온 김 의원의 꿈은 약자와 함께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남북으로 갈린 강원도가 평화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은 그가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의 한 갈래이다.

속초2 더불어민주당

김준섭 의원

코로나-19 팬데믹 속 교육현장에 대한 남다른 고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이다. 학생들의 성적은 양극화되었고 지루한 고립 속에서 2년여를 보내야 했다. 학부모들은 매일 돌봄은 물론 매끼 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에 힘겨워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김준섭 의원은 지난해 7월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도내 모든 초·중·고 가정으로 5만 5,000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와 3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올 8월에도 농산물꾸러미가 배송될 예정이다. 농산물 꾸러미는 코로나-19로 지친 학부모들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과 상품으로 구성돼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강원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앞으로 원격교육 프로그램과 장비 등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집중하려 한다.

김의원은, 중학교가 없어 통학하기 불편했던 속초 남부권에 기존 북부권 속초중학교의 이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속초 설악동 활성화를 위해 옛 설악수련원 부지에 체육훈련시설 설치를 줄기차게 제안한 끝에 강원도가 훈련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큰 성과다.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에 앞장, 남북교육교류에도 집중

속초는 물론 강원도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동서고속



화철도 사업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며 지지부진했으나, 최근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이 결정됐다. 앞서 김준섭 의원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동서고속화철도 특위는 답보를 거듭하는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사업추진의 불씨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으로부터 접경지역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되고 동해북부선과 이어져 미래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남북교육 교류에도 관심이 많다. 통일 후 남북이 이질감을 줄여나가려면 교육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확신한다. 김 의원은 지금은 정치 상황이 좋지 않아 남북교류가 가로막혀있지만, 다시 찾아올 화해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두어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런 가운데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가 최근 개통됐다. 옛 거진초 송정분교장에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류사무소가 개설돼 남북교류협력의 희망은 빛나고 있다.

어려운 농업 현실 개선에 집중



홍천2 국민의힘

신도현 의원

홍천군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다. 서울의 3배 규모다. 신도현 의원의 지역구는 홍천읍과 북방면을 제외한 8개 면. 이곳만도 서울 면적의 약 2.6배다.

군 공무원으로 40년을 봉직했고 7년간 도의원으로서 드넓은 홍천의 들판을 뛰어다닌 그는 이미 농촌 전문가이자 홍천 전문가이다.



감자 토굴저장소 리모델링 등 농업 적재적소 지원

“지난 제9대 도의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4년, 또 이번 10대 도의회에서도 4년간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 많은 내공이 쌓였죠.”

과연 무엇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인가부터 고민하는 신도현 의원. 도로 포장, 농수로 신설 같은 눈에 잘 띄는 개발사업보다 농가 하나하나를 보듬고 챙기는 것이 그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의 어려움은 산재해 있습니다. 값이 급등한 묘목과 농약, 농자재, 저장시설까지 말이죠. 일손 부족, 영농비 증가 문제 등 어떻게 하면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나 하는 것이 제 모든 고민의 시작점입니다.”

그는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에 집중한다. 농촌 보조금 총액제도로 인해 농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있을 때는 도비를 적절히 지원해왔다. 지난해 도정질의에서는 노후화된 감자 토굴저장소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으로 2개 동을 리모델링해 냉장 효과를 높였다. 주민 반응이 좋아 올해는 5개 동을 추가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촌 택배비 지원 조례 추진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어려워지자 농촌과 어촌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아우성이다. 신 의원은 이



※ 위 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촬영된 사진임

같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내 농어업 현장 국내외 근로자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강원도 농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산농가 확대에도 관심이 많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하는 조례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면 축사시설 개선과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생기리라 기대되고 있다.

동료 의원들과 공동으로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농산물 택배건수가 2배로 늘었다. 온라인 판로 개척과 함께 도시 소비자에 대한 직판을 늘리고 있는 농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해준 조례였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참신한 후배, 그리고 고향의 농민들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참이다.



※ 위 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촬영된 사진임



Q&A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발의 >> 허소영 의원 외 6인

Q 사회가 복잡다양하게 발전하고 물신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모든 시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합니다. 법적으로 교육을 유도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도의회가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해 도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 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등입니다. 조례에서는 또 도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행하도록 규정해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알찬 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 김경식 의원 외 8인

Q 지역균형발전이란 정책적 용어는 많이 쓰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이나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균형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 그렇습니다. 기존의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는 사업추진과정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만 있지 실질적 정책 추진을 담보할 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와 관련계획 수립, 사업 발굴과 평가, 컨설팅 등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 권순성 의원 외 5인

Q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홀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 규정이 약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도와주세요.

A 네. 이번에 도의회는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먼저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인 자립생활체험홈에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한편 자립생활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자립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자립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인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홀로서기를 보다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박윤미 의원 외 4인

Q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구강 질환이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로 치아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구강보건을 지원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예전과 달리 요즘은 구강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어요. 하지만 구강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크답니다.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생겼어요. 이에 도의회는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 차원에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의치보철, 임산부와 아동의 치아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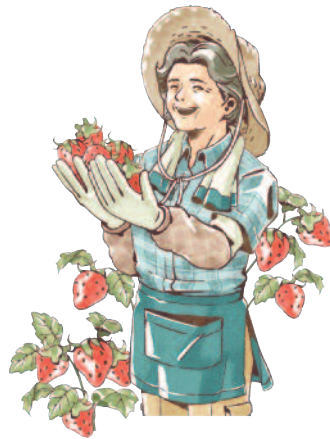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 한금석 의원 외 1인

Q 강원도의 농촌은 고령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령 어르신들의 농업 규모가 크면 지원이 어려워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A 네. 강원도는 농업 고령화에 대응해 2013년 11월에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000㎡ 이상부터 5,000㎡ 이하의 경작면적을 보유한 만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게 경운, 정지, 피복, 수확 등 농작업 대행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5,000㎡가 초과되는 경작지를 운영하는 고령 농업인이 많고 그들의 경영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1,000㎡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발의 >> 박병구 의원 외 5인

Q 농어촌에는 지역의 전통을 이어받고 문화적 가치가 큰 유산이 많이 있지만 농어촌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산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A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농어업적 전통과 문화적 가치가 크며, 국가적 대표성과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강원도는 고령지 농업 등 특색 있으며 보전하고 활용할 가치가 큰 농어업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정된 유산이 전무해요. 그래서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보전 가치가 큰 농어업유산을 발굴·지정하고 향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중요한 농어업 유산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발의 >> 윤지영 의원 외 7인

Q 청년농어업인만 육성하기에는 중년이 되어 농어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A 맞습니다. 40세 이후에 귀농, 귀어하는 중년층이 많아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며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만 해당하지만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이거나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제정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도 이같은 내용을 담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넓혔습니다.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발의 >> 권순성 의원 외 4인

Q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이 더워져요. 조금이라도 이 더위를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을까요?

A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다소나마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심자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강원도의회도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옥상에 식물을 심을 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건축물 옥상녹화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요. 또 시·군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지요. 물론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건물주 및 관리자는 해당 조경시설 등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반려동물산업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발의 >> 신명순 의원 외 6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구성원 수가 줄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목된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도내 반려동물 산업 육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17.5%로, 2019년 기준 도내 63만 3,942가구 중 11만 940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4조 5,7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사료산업, 동물용 의약품업, 반려동물 용품점업, 동물병원, 펫 미용·카페·장례업 등이 있으며 특히 사료·의약품·병원·용품 관련 산업은 성장률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펫 리빙, 펫 플레이 등 반려동물 동반 복합산업이 등장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다양해지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

서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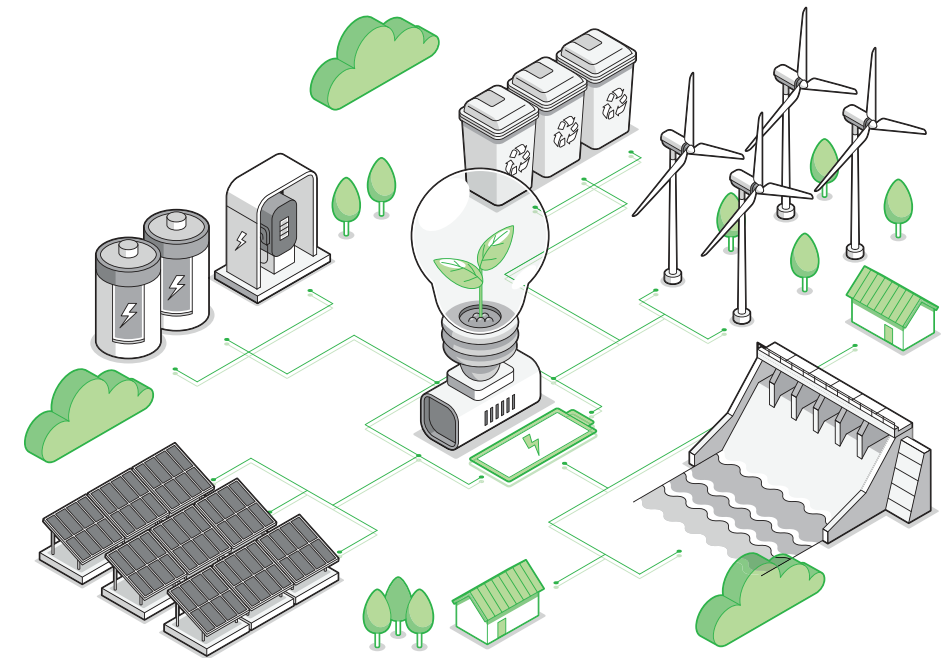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산업의 기술 향상과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강원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한편 반려동물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린 뉴딜 추진 1년... ‘2050 탄소중립’ 주춧돌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지난 1년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3대 분야에서 8개의 주요 과제가 추진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보완돼야 할 과제를 모색할 때다.

주요 성과

주요 성과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확보에서 찾아진다.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예산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그린 뉴딜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총 9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5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 조성 및 운용, 녹색금융 지원 등 금융을 매개로 투자재원 마련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녹색산업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후기술개발촉진법'과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제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의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법과 제도의 도입을 바탕으로 추진된 그린 뉴딜의 분야별 실질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1만여 가구와 어린이집 800여 동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다. 또한 올해부터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본격화됐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의 도입이 대표적인 성과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까지 전기차 15만 1,000여 대, 수소차 1만 2,000여 대가 누적 보급됐으며, 충전소 인프라는 전기충전소 6만 6,696기, 수소충전소 81곳이 설치됐다. 국가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연계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여수,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지정 및 인프라 개선, 올해 말까지 그린 뉴딜 유망기업으로 총 71곳 지정 및 지원 육성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들 수 있다.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정량적인 성과와 함께 정성적인 성과도 있다.

첫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회의에서 그린 뉴딜이 소개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 탄소중립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린뉴딜을 발판으로 진화·발전한 산물이다. 그린 뉴딜은 일종의 마중물로서 '2050 탄소중립'의 장기 전략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17개 시·도를 포함한 상당수의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그린 뉴딜 사업의 추진은 그 자체로서 주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의 주도성은 그린 뉴딜

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의 전체를 관통하는 요체로서 사업의 지속성과 수용성 및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 뉴딜이 마중물 역할을 넘어서서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기 위해 보완돼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미래전환 10대 입법과 제 등 그린 뉴딜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 등 법과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지체되고 있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 및 산업계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다차원의 소통과 지역과 민간이 당면한 문제해결형 사업을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지역 주민 및 민간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그린 뉴딜의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 그린 뉴딜 사업은 지역의 주도성을 더욱 강화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현안 해결 및 성장 동력의 발

굴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온실 감축 로드맵과의 내용적 정합성 확보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 역점사업의 조정 또는 추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올해 11월에 발표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명실상부한 주춧돌이 되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보완이 절실하다.



알기쉬운 정·책·용·어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이란 100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22곳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했으며 2024년까지 100개 개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래 소부장 으뜸기업 제도를 운영하며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감소했다. 소부장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무려 20.1%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이 83% 감소했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자체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최고의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100개의 소부장 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5년간 최대 2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편집자註: 제10대 강원도의회는 10개의 연구회를 두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10개 연구회의 활동을 알아보고 비전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가뭄 심해지는 농촌, 기후위기 대응방안 연구

기후변화연구회



기후변화연구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한 강원도는 보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2020년 3월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다.

위호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박병구(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김진석(더불어민주당), 박윤미(더불어민주당), 신명순(더불어민주당), 윤지영(더불어민주당), 정수진(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강원도 기후 현황 파악하며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회장인 위호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며 “강원도의 기후변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 농어업 손실 문제의 대안을 찾고, 청정한 강원도의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며 연구회 창립 취지를 밝혔다.

기후변화연구회는 창립하자마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 18일에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견학하고 기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기후변화연구회는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신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연구개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기후변화연구회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주요 추진업무와 강원도의 기후변화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기후변화가 강원도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변화로 가뭄 심해진 농촌에

안정적 용수 공급 필요

7월 23일에는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2020 기후변화 재난방재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강원도민 폭염 대응 토론회’로 강원도 재난안전실장, 강원지방기상청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춘천기상대장 등이 참여해 도내 폭염 현황과 피해상황,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지난해에는 또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기후변화와 강원

도 발작물의 봄철가뭄과 정책시사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강원도 지역 전체적으로 봄철 강수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별 강수량의 큰 편차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기온 상승으로 토양의 유효수분지수도 감소하고 있었다.

농작물의 생육 초기단계인 봄철 기간의 가뭄은 농작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관계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기후변화원은 강원도 북부와 영동지역은 가뭄이 ‘매우 심함’ 지역으로 평가되어 이 지역에 대한 봄철 가뭄을 대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회장인 위호진 의원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연구회

등록일: 2020년 3월 18일

회 장: 위호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사: 박병구(더불어민주당) 의원

회 원: 김진석(더불어민주당), 박윤미(더불어민주당),
신명순(더불어민주당), 윤지영(더불어민주당),
정수진(더불어민주당)

다문화사회 연구회, 원주 방문

“
원주지역 다문화센터 방문해
지원방안 모색

강원도의회 다문화사회 연구회(회장 신영재 의원)는 7월 5일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공동체 원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문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센터를 직접 찾아가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회 회장인 신영재 의원(국민의힘·홍천2)은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으며, 이는 센터 종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문화 가정을 넘어 이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다문화사회 연구회는 다문화인이 편견과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도의회 현안사업 지원 연구회 창립

“
지역별 주요 현안사업
적극 해결



제10대 강원도의회의원 연구모임인 ‘현안사업 지원 연구회’가 7월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현안사업 지원 연구회는 지역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 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 제도와 연계해 각 지역 주요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금석 의원이 초대 모임 회장을, 김상용 의원이 간사 역할을 맡았다. 박효동·

반태연·신명순·위호진·허민영 의원이 참여했다.

현안사업 지원 연구회는 창립총회를 통해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 지역별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강원도평화협력의원단추진단 활용방안 등을 깊이 논의했다.

한금석 의원은 “도민의 사회적 니즈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과 행정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전방위적 네트워킹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여러 현안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제10회 우수의정대상

“
강원도의원 8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도의정회와 언론인 2명,
의정발전 유공 표창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김경식, 김수철, 나일주, 반태연, 위호진, 심영미, 정유선, 조성호 의원(가나다순) 8명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중)가 수여하는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시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의정활동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전국시도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지찰 활동으로 집행부 견제에 집중하는 한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자생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은 지역 및 향토문화 발전과 평화지역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간담·토론회를 적극 추진하여 발굴 안건의 정책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은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앞장선 결과 폐투법 시효 연장에 크게 기여하고, 현장 속 의정활동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효과성을 높였다.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은 학생들이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여건 조성고 더불어,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과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 힘쓰는 등 교육발전을 위



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은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도민의 권리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제언 분야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펼쳤다.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은 학생들의 성숙한 통합과 공동생활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운영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신뢰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교육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은 도민의 권익 향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집행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대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강원도의회정과 강원일보 이하늘 기자, 강원도민일보 이설화 기자가 표창을 받았다.

의정발전유공표창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991년에 부활한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단체, 언론인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07. 05

강원도의회
다문화사회연구회
현장 견학



07. 06

강릉시 발달장애인
그림사진 전시회

07. 06

제10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



07. 07

강원도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조사



07. 14

제13회 강원 미래
과학 포럼

07. 14

제302회
사회문화위원회
현지시찰



07. 15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발표



07. 15

홍천 옥수수
강원도의회 홍보



07. 15

남북강원도 연구회
농업협력사업 모델개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07. 16

신임 강원 지방경찰
청장 방문





평창 상원사

세조와 문수보살의 인연이 깊은 사찰

상원사는 수려한 산세를 품은 오대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아름다운 전나무숲길로 유명한 이곳은 월정사의 말사이다. 말사라고 하기에는 품고 있는 보물이 많고 절 자체가 풍기는 아우라가 대단하다. 월정사에서 오대산으로 가는 선재길은 10km 정도의 숲길로 수많은 수도자가 구도를 위해 걸은 길이다.



고양이 석상

말사라고 하기에는 품고 있는 보물이 많고 절 자체가 풍기는 아우라가 대단하다.

신라 성덕왕 4년(705년) 때 보천과 효명 두 왕자가 창건한 상원사는 세조가 문수보살을 만난 일화로 유명한 곳이다. 조카(단종)까지 없애며 왕위를 차지한 그는 훗날 피부병으로 고생을 해서 전국의 종다는 물을 다 찾아다니다 상원사 계곡까지 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동자승이 나타나 등을 밀어주었는데 “어디 가서 임금의 옥체를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니 “임금께서도 문수보살을 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곤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세조는 피부병이 완치되었고 그때 만난 동자승을 나무에 조각하게 했는데 이 목각상이 국보 제 221호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좌상이다.

문수전 계단 아래에는 한 쌍의 고양이 석상이 있는데 이 역시 세조와 인연이 깊다. 상원사를 찾은 세조가 법당으로 들어서려 하자 고양이 한 마리가 세조의 옷자락을 물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알고 보니 자객이 숨어 있었다. 고양이 덕에 목숨을 건진 세조는 상원사에 논과 밭을 내렸는데 이때 고양이 석상도 함께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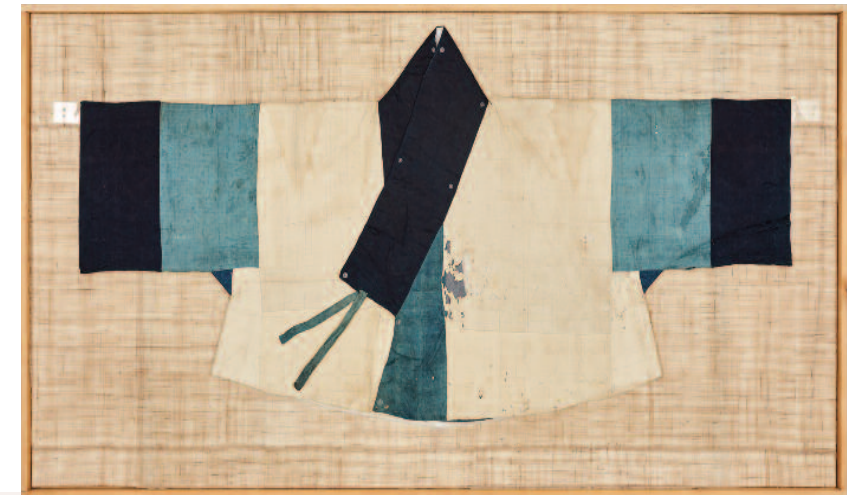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사 범종도 눈여겨 볼 만하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신종보다 45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이 종은 종머리에 얹은 용과 몸통에 새겨진 비천상이 매우 아름다우며 은은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조대의 회장저고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고리

세조가 상원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세조대의 회장저고리라고 부른다.



회장이란 저고리의 깃·끝동·겨드랑이·웃고름 등에 색이 들어간 천을 대는 것을 말한다. 세조대의 회장저고리는 1975년 오대산 상원사 문수동자좌상에 금칠을 다시 할 때 불상 안에서 발견되었다. 불상이 1466년 세조가 상원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이 저고리 또한 그즈음 넣은 것으로 추정해 세조대의 회장저고리(世祖代の 회장저고리)라고 부른다.

저고리 뒤쪽에 장씨소대(長氏小對)라는 글씨가 있어 저고리의 주인이 세조의 후궁 중 장씨 성을 가진 여인이라 추측되고 있다.

같은 색깔을 열고 질게 하여 교대로 배치해 의복의 배색 효과를 잘 살렸는데 이 점은 우리 선조들이 의복을 만들 때 단순히 흰색이나 원색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관되고 있는 저고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저고리로 각이 진 깃, 직선 형태의 소매, 짧고 좁은 웃고름 등이 조선 초기 저고리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깃과 끝동이 모두 넓고 목판깃과 쇄의 배치가 조화로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다. 구성이 훌륭하고 쪽빛으로 염색을 들인 색상이 훌륭하다는 점 등이 의복으로서의 연구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

회장저고리의 크기는 길이 52.4cm, 폭 34cm, 깃 너비 14cm이다. 품이 넓어서 소매길이와 저고리 길이가 짧게 보인다. 겹감은 백초, 안감은 명주로 된 겹저고리로 소매와 겹섶 곁은 청색초, 깃과 소매 끝동, 겨드랑 아래 소형 삼각무는 심청색 연화보문단으로 장식했다. 1987년 중요민속자료 제 219호로 지정돼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 보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화암동굴, 용소동굴, 산호동굴

금맥 속 동굴, 수중 동굴 등 시원한 볼거리

정선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하면 화암 8경을 들 수 있다. 그중 4경이 화암 동굴인데 동굴을 중심으로 반경 3~4km 이내에 1~8경의 비경이 다 있다. 화암동굴은 원래 금을 캐던 광산이었다. 1922년부터 해방 때까지 23년간 약 30kg의 금을 채굴했는데 금맥을 찾던 중 천연동굴이 발견되면서 정선군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용소동굴

산호동굴은 국내에서 가장 크고 많은 동굴산호가 분포돼 있어 보호 가치가 높아 509호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다.

화암동굴의 길이는 1,803m로 동굴 중간에 2,800㎡의 광장이 있고 주변에 중유석과 석순·석화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화암동굴 매표소에서 입구까지는 가파른 경사길이라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다. 동굴 안은 계단이 많아 탐사가 쉽진 않지만 곳곳에 테마별로 꾸며놓은 공간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큰 중유석들이 조명을 받아 아름다워 볼거리가 많다. 2019년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됐다.

화암면 백전리에 있는 용소동굴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동굴 중에 수심이 가장 깊고 길이도 가장 길다. 동굴이 갖는 특이한 환경의 가치가 매우 높아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인정돼 2015년 천연기념물 제549호로 지정됐다.

여량면 여량리에 있는 산호동굴은 동굴산호가 발달해 있는 대형 석회동굴로 총 길이 약 1,700m이다. 반론산과 반륜산이 연결되는 8부 능선에 있다. 혹 또는 버섯 형태를 띠는 동굴산호는 바닷속 산호와 모양이 비슷해 붙은 이름이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많은 동굴산호가 분포돼 있어 보호 가치가 높아 2009년 천연기념물 509호로 지정됐다.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

백두대간 아래 신비로운 고생대의 흔적

시원한 고랭지로 탐방로도 잘 조성돼 있어
여름철 휴가지로 다녀올 만하다.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는 정선군과 강릉시의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 능선 줄기와 인접한 정선군 임계면 백봉령 일대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 등에 녹아 생긴 지형이다. 크로아티아의 카르스트 지방의 지형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의 석회암 생성기는 고생대 캄브리아기 중기(약 5억3000만 년 전)이지만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시기는 약 200만 년 전에 시작된 신생대 제4기 이후로 추정된다.

카르스트 지형의 가장 큰 특징은 지하에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대규모의 석회암 동굴과 돌리네(doline)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돌리네란 석회암 지대에서 탄산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원형 또는 타원형의 깔때기 모양으로 패인 웅덩이를 말한다. 대부분의 돌리네는 넓이에 비해 깊이가 아주 얇은 형태

이다. 백봉령 일대에는 약 130개의 크고 작은 돌리네가 분포하는데 고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흘러나와 이론 계곡물과 샘물이 있다.

돌리네의 침식이 더욱 진행돼 2개 이상이 연결된 복합 돌리네를 우발라(uvala), 우발라가 합쳐진 함몰지를 폴리에(polje), 석회암 지대의 붉은 점토질 토양을 테라로사(terra-rosa)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카르스트 지형에 속한다.

일정한 면적에 집중적으로 발달한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는 학술적으로는 물론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국내 대표 카르스트 지형이다. 보존 가치가 높아 2004년 천연기념물 제440호로 지정되었다.

백봉령은 지대가 높고 백두대간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여름철에도 시원한 고랭지이다. 탐방로도 잘 조성돼 있으니 여름철 휴가지로 다녀올 만하다.

산호동굴

화암동굴

2021년 월별 회기운영 일정

월 별	회 기	예 상 안 건	비 고
계	140일 이내	(정례회 55, 임시회 75, 예비회기 10)	
2월	제297회 임시회 2.17. ~ 2.26. (10일간)	■ 신년연설(도지사, 교육감)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2.12. 설날
3월	제298회 임시회 3.16. ~ 3.25.(10일간)	■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등	3. 1. 삼일절
4월	제299회 임시회 4. 7. ~ 4.15.(9일간)	■ 청소년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4.16.~5.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5월	제300회 임시회 5. 6. ~ 5.21.(16일간)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5. 5. 어린이날 5.19. 부처님 오신날
6월	제301회 정례회 6. 1. ~ 6.16. (16일간)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6. 6 현충일
7월	제302회 임시회 7. 6. ~ 7.15.(10일간)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7. 8 도민의 날 행사
9월	제303회 임시회 9. 2. ~ 9.10.(9일간)	■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행사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9. 6 1956년 제1회 강원도의회 개회 9.21. 추석
10월	제304회 임시회 10. 5. ~ 10.15. (11일간)	■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어린이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10. 3 개천절 10. 9 한글날
11월·12월	제305회 정례회 11. 2. ~ 12.10. (39일간)	■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 병행) ■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필요시	예비회기 (10일간)	■ 긴급 임시회 소집 또는 기존회기 연장 운영	